

얼음을 깨뜨리며

김 희 경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료)

1.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를 대려고 하는데 1층에 살고 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듯이 서 있는 그를 향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런데 그가 혼잣말인지, 짐짓 자신을 보아달라는 것인지 “아. 이 얼음이 도통 깨지질 않네.”하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나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살았다. 주차장은 건물 바로 앞에 있었다. 빙판길이 되어 버린 주차장을 오가며 나 역시 눈과 얼음을 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연히 유난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방에 알리는 것 같아 마뜩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혼자 얼음을 깨고 있는 그를 마주치게 된 것이다.

나는 1층 비품 창고에서 쓰레받기를 들고 와 모서리로 얼음의 가장자리를 깨기 시작했다. 쉽게 으스러지는 알갱이들도 있었지만 좀처럼 부서지지 않은 얼음도 있었다. 1층 사내 역시 창고에서 긴 빗자루를 들고 와 내가 깬 얼음을 쓸어 별이 드는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단단하게 붙어 있는 얼음을 깨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했다.

2.

이곳에 이사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갔지만, 그와 이렇게 오랜 시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익히 관찰해왔고, 그 관찰을 통해 안다면 알고 모른다면 모를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말이다. 이 건물에 먼저 이사를 온 사람은 나였다. 2층으로 할까, 3층으로 할까 망설이는 나에게 남편은 3층이 안전할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통로 쪽으로 할까, 안쪽으로 할까 역시 고민했는데 부동산 여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한마디를 툭 내던졌다.

“당연히 통로 쪽 방이 좋지요.”

“왜요?”

“봐요. 안쪽 방을 택하면 다른 방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도 있고 마주치기도 쉽잖아요.”

심드렁한 그 여직원의 한 마디 말은 이 건물에서의 내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가

급적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다는 지침이 그녀의 말 뒤에 숨어 있었고, 나는 철저히 그 지침을 따르게 되었다. 실제로 내가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어, 영국에서 온 여자 대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남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그 사건을 내게 들려주며 일본인 지인인 고치씨는 나에게 “희경씨, 절대 이 아파트에 사는 다른 사람, 특히 남자하고는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아요. 위험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크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달린 렌즈에 이지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아파트를 입주한 첫날부터 나는 통로 쪽 방을 추천해 준 여직원의 숙내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3층 통로 쪽 방은 다른 사람들이 내는 모든 소리를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삿짐을 나르느라 땀으로 찢든찢든해진 몸을 마룻바닥에 누이고 잠시 눈을 감고 선잠을 청하던 그때, “뚜벅뚜벅”하고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귀 안쪽으로 꽂히는 게 아닌가. 시계를 보니 밤 12시 반이었다. 나는 긴장감에 벌떡 일어나 그 소리가 향하는 방향에 귀를 기울였다. 그 묵직하고 다소 위협적인 발자국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반대편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철컹컹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나는 긴장한 얼굴로 그 소리의 방향을 좇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전날 밤보다는 다소 날렵하고, 조급한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 6시. 마치 나의 집 현관문이 열리는 듯 문 열리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전날의 피곤함으로 인해 간밤처럼 기민하게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귀만은 종긋 세운 채 소리의 방향을 좇고 있었다. 그 소리 역시 나를 지나쳐 급하게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이렇게 며칠 동안 나는 열심히 이 건물에서 나는 소리들과 렌즈를 통해 파악한 정보들을 부지런히 모으며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부동산 여직원이 이 아파트를 내게 추천해 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들은 연달아 발생했다. 한번은, 친구를 마중하러 나가는데 1층 맨 오른편 방에 경찰들이 와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집을 나르고 있었다. 친구와 나는 경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도둑이 들었는지 물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집에 사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사 온 당일 날, 문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나를 쳐다보던 긴 노랑머리의 여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웬 사내가 그 집을 쓰기 시작했다. 며칠 뒤, 2층 난간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특가 할인! 지금 들어오시면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였다. ‘한 달만 뒤에 들어왔어도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건데’라는 생각은 잠시, 그 뜻말이 붙은 이유는 그만큼 이 건물에 빈 집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왔다. 지역주민이라면 쉽게 선택하지 않을 뭔가 암울한 사연이 있는 건물을 사정 모르는, 좀 만만해 보이는 외국인인 내게 소개해준 것은 아닌가? 나는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무엇보다 매일 밤, 새벽 3시 반 경에 누군가가 거칠게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더욱 큰 불안을 느꼈다.

‘헉! 무슨 소리지?’

집에 질린 채, 나는 이불 안에서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는 베란다에서 할지 말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나는 몇 번이고 그 소리를 들었다. 나중에는 내가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해져 헛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를 의심할 정도로 새벽 3시 반마다 나는 그 둔탁한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다. 렌즈로 밖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시각이었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볼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어쩌면 그는 지능적으로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가 호기심에 못 이겨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칼을 들이대며 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간 내가 모아온 소리의 정보들을 펼쳐놓고 그 주인공을 찾기 시작했다. 분명 한 달 전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다. 그러면 한 달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1층집에 두 사내가 들어온 게 달라졌다. 한 사내는 범인이라는 노랑머리 여자의 집에 들어왔고, 또 한 사내는 1층 통로 쪽 방에 들어왔다. 그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백발의 남자 노인이었다. 나는 특히 그 백발의 남자 노인이 신경에 거슬렸다. 그는 이 아파트에서 지켜야 할 암묵적인 규범을 보란 듯이 배반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었다. 그는 종종 자기 집 현관과 베란다 문을 열어놓았다. 또 하나, 그는 자기 집 앞이자 공동 주차장 공간을 마치 자신의 앞뜰처럼 사용하였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햇볕을 쬐기도 했고, 먹다 남은 페트병을 놓기도 했고, 자전거를 주차시켜 놓기도 했다. 특히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차를 주차시키면서 그가 은밀하게 현관문에 달라붙어 나를 관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에 빠져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를 일이다. 아니,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는 달리 하는 일도 없었고, 건물에서 나와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묘한 흥분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 얼마간 나는 그의 시선을 불쾌해하고 불편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치고 있을지 나는 짐짓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나야말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것이다. 3층에 사는 저 여자 역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 몸은 비교적 마른 편이다. 자동차를 타고 나갈 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나갈 때도 있다. 하지만 전혀 나가지 않는 날도 많다. 어떤 날은 새벽같이 나가고 어떤 날은 다 늦은 밤에 집을 나서기도 한다.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 신문은 2개나 구독하고 있었다. 한 번은 어떤 사내와 함께 다정하게 집에 들어간 적도 있다. 그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요상한 말을 떠들며 지나갔다. 가끔은 일본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나이든 여자도 찾아오고, 젊은 여자도 찾아온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나이도 있어 보인다. 안경을 쓰고 다니는 모양새를 봐서 술집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왜 여기서 살까? 왜 여기서 혼자서 살까? 뭐하는 사람일까? 아마 그도 나처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을 되새기며 나를 관찰하고 있을 터이다.

실제로 나의 상상은 한 발 더 나아가 있었다. 내가 결국은 피해자가 되거나 그와 격투를 벌

인 끝에 사내를 찢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언론에 보도될 내 방의 모습은 어떨까. 한쪽 벽면에는 지도가 잔뜩 붙어 있고, 신문 더미는 잔뜩 쌓여 있다. 다른 한쪽에는 최신식 프린터 겸용 스캐너가 놓여 있고, 오른쪽 벽면에는 각종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내 방을 나는 새삼 쳐다본다. 조사를 빌미로 그들은 내 노트북까지 뒤질지 모른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그리고 시의 중요한 정보 및 통계들을 잔뜩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질지 모른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던진 것까지 세세하게 다 적고 있는 조사 일기를 보며 사람들은 아마 경악할지도 모른다. 새삼 외국의 인류학자들이 일본을 조사할 때, IRB와 같은 연구윤리심사를 받아야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될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도쿄대 객원연구원 신분의 외국인 여성 연구자를 처리하는 문제는 꽤 신중을 기해야 할 외교적인 사안이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도 꽤 큰 이슈가 될 지도 모른다. 새삼 인류학이 무엇인가, 인류학적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연구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질지도 모른다. 내가 이러한 생각까지 하면서 살았던 것은 현실에서의 나는 참으로 힘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무례하고 위협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호소할 곳도 마땅히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을 밝혀낼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3.

얼마 전, 나는 50대 여성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나의 주된 정보제공자인, 80대 노부부의 딸이었다. 그녀는 내가 노부부를 만날 때마다 늘 함께했다. 그렇게 그녀를 알고 지낸지 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단 둘이서 차를 마실 기회가 생겼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집에 잠시 들르지 않겠느냐고 청했다. 나는 그러자고 했다. 그녀는 아이가 없었다. 그녀의 문제인지, 그녀 남편의 문제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시골에서 아이가 없다는 상황은 그녀를 꽤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적적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나라는 존재가 신기해서인지 하루에도 여러 개의 실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녀가 내심 불편하기도 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나에게서 너무 중요한 심층 연구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막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건 뭔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자 남편은 “혹시 레즈비언 아니야? 조심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내가 너무 남편에게 그녀를 병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공연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대로 그녀를 멀리하면 그녀는 정말 ‘레즈비언’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나는 노인들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목말라 있기도 했다. 나중에 이곳을 다시 찾아왔을 때 나의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나는 좀 더 오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잇속을 가늠하며 나는 이 자리를 통해 ‘그 여자 레즈비언이 아냐. 내가 오해했어.’라고 남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

다는 바람을 품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아. 맞다. 희경씨. 강아지 좋아해요?”

“아. 저는 개를 좀 무서워하는데요.”

“그래요? 우리 집 강아지는 작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개를 무서워한다. 세상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장사꾼이 손해 보고 물건을 판다는 말, 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는 말. 그런데 나는 늘 세상에는 4대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바로 개 주인이 “이 개는 물지 않아요.”라는 말이다. 심지어 손의 절반이 개의 입 속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보았다. 내가 지금 그 광경은 대체 뭐냐고 항변하면 상대는 “아. 이건 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몸에는 개에게 물린 상처가 반드시 발견됐다. 게다가 애정을 무는 것으로 표현한다니. 나는 그 표현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녀석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다. 자신을 위협하지 않아도 일단 짖고 본다. 내 소리와 냄새만 맡고 행여나 자신에게 가할 위협을 두려워하며 먼저 나를 위협하질 않는가? 나는 새삼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녀가 집에 들러 차나 한 잔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때 “혹시 개 키우세요?”하고 물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했다. 하지만 그것도 참 황당한 질문이다. 그래서 나는 끌려가듯이 그녀의 집에 들어갔다.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했다. 남편과 함께 사는 50대 여성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 전체가 낡고 마당에도 양동이, 빨래줄, 신발 등 이런저런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발을 내 던기가 힘들 정도로 책과 신문, 먹다 남은 차, 그리고 왜 거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액자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차를 내 올 생각이 없는 듯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바로 옆방에서는 개가 킁킁하고 짖고 있었다. 그 놈의 집이라고 불리는 아주 좁은 창살 안에 갇혀 있었다. 바깥에서 뛰 놀지 못하고 갇혀 사는 녀석의 정신 상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저 녀석도 결국은 나를 증오하게 될 테지.

나의 이런 복잡한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그동안 나에게 묻고 싶은 각종 질문들을 토해냈다. 혈액형은 뭐냐? 성격은 어떤 편이냐? 생각이 많은 편이냐? 남편은 어떻게 만났느냐? 등등. 심지어 그녀는 내 손금까지 봐주었다. 왜 미팅 자리에서나 들음직한 이런 질문들을 그녀가 나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꽤 길고 상세한 답변을 토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 그간 상당히 말에 굶주려 있었던 모양이다. 말미에 그녀가 나에게 사실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회심의 질문을 날렸다.

“저기. 부모님이랑 남편이 허락해 주던가요? 이렇게 혼자서 일본에 오는 걸?”

“네. 남편은 대학교 때 저랑 같은 전공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해 줬지요. 부모님께서도 걱정은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도 1년간 지냈거든요. 미국보다는 일본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더 안심이 되셨겠지요. 그래봐야 부모님은 늘 걱정하시겠지만요.”

“아. 그렇군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괴로운 역사가 있잖아요. 테이신타이라는. 그런데도 부

모님하고 남편이 보내주던가요?”

처음에 나는 그녀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다. 테이신타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나는 그게 정신대(挺身隊)라는 말인 것을 깨달았다. 정신대. 그 단어를 나는 참 무심할 정도로 잊고 살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단어를 일본인 여성의 입을 통해 들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녀가 그 어휘를 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나는 한 동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만 했다.

“글쎄요. 그게. 그런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라 부모님하고 남편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보세요. 저는 학생이라는 신분도 있고. 여기는 치한도 안전하고.”

나는 말을 더듬거리며 뭔가 말을 이으려고 애썼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다.

“아. 그렇군요.”

대화는 다시 이런저런 화제로 휩쓸려 돌아다녔다. 건넌방에 갇힌 개의 목소리가 애원에서 분노로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에 그녀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대’라는 단어가 뇌리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앉았기 때문이었다. 6개월간 매달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를 안 다음 그녀는 매일 같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야 그녀는 나에게 자기 나라 여성들의 몸을 겁탈했던 그 나라에 자신의 소중한 딸을, 그리고 부인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고,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그 질문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지난 1년간 나에게 쏟아졌던 질문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결혼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용케 남편이 보내줬네요. 용케 시부모님이 이해해 주셨네요.” 그런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 이면에는 어찌면 그녀가 내게 던진 질문이 생략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야말로 창살에 갇힌 채,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저 녀석처럼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사실 나에게도 못 다한 말들이 많이 있었다. 일례로 일본말을 하는 외국인을 볼 기회가 없던 이곳 주민들은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일본어를 읽을 줄도 아세요?”하고 물었다. 그들이 지칭한 일본어란 한자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일본에 한자를 전해준 게 한국이에요.”라는 말을 하며 사실을 바로잡으려 애쓰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그들을 그저 관찰했다. 그들의 무지가 나에게서는 관찰의 대상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한자를 못 배워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데 그게 맞지요? 내가 예전에 경주에 관광을 갔는데 그때 한국 관광 가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체화해 온 한국인으로서의 나를 느끼기도 했다. 게다가 앞 뒤 없이 배타적인 사람들도 많았다. 말이라도 붙여볼 양으로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한국 음식 같은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라며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국음식에는 무조건 고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 식당에 가면 샐러드처럼 나온 김치를 밥도 없이 잠자코 씹으며 한국음식은 참 맵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은 적도 있었다. 가끔씩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열변을 토하기도 했지만, 점차 내가 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기 시작

했다. 결국 말을 남기는 사람은 학자인 나라는 오만으로 스스로를 지탱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역시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통행을 행해왔음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이다.

4.

어둠 속에서 나는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어렴풋이 책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4시였다. 몸을 움직여 보았다. 이불 속의 몸은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다. 3.11 대지진이 발생한 오후, 나는 수십 년 간 료칸을 경영해온 지역의 유지를 만나 긴 인터뷰를 마치고, 서점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커피숍에 들러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떨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상한 기운에 주변을 둘러보니, 천정에 달린 전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뛰어 나가고 있었다. 나 역시 재빨리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점 건물이 기묘한 모양으로 춤을 추는 것을, 그리고 책장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진동이 저 멀리 동북부 해안으로부터 몰려왔다는 사실을 서점 건너편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들을 수 있었다. “여기도 진도가 6.8이었대요.” “저는 여기 오는 차 안에서 느꼈잖아요. 차가 막 흔들리는데 지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몇 마디가 오고 간 후,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책장이 넘어져 있었고 책이 부산하게 흩어져 있었다. 나는 책을 적당히 밀어 넣고 3.11 대지진에 대한 뉴스를 지켜보며 도시락을 까먹었다. 그리고는 위험지역이라 표시되어 있는 곳에 있는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요코하마와 치바 쪽에 있는 지인들의 전화는 멍통이었다. 오키나와에 있는 지인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온 가족이 대피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오사카에 있는 지인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까지 전화를 했느냐며 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내가 쓰나미를 맞이한 첫 날의 풍경이었다. 내가 위험지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재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재해’를 관찰하다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 4시, 강진과 함께 나는 이것이 ‘그들의 재해’가 아닌 ‘나의 재해’로 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다. Tv를 틀어보니 나가노현 지역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고, 나가노현 지역 주민들은 얼른 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책상 밑으로 피신을 하라는 대피하라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다. 도호쿠 쓰나미의 영향으로 나가노현에도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한국에까지 전달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하다”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진은 계속됐고, 그때마다 번번이 신칸센도 멈췄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도 막혀버렸다. 요코하마와 치바 쪽에 있던 지인들은 간신히 신칸센을 잡아타고 규슈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날 계획을 나에게 알려왔다. 2호기가 터진 다음날이었다. 떠날 수 없는 나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여기는 안전하다”고 말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었다. 잠시지만 어떻게든 남아 있어야 했던 나는 한국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는 일본에 대한 기사들도, 한국에서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다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줘야만 했다.

신기한 것은 떠날 수 없는 나의 처지를 인식하자,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 즈음, 매일 새벽 세 시 마다 나의 집 방문을 세계 걷어차고 가는 무례한 방문자의 정체도 알게 되었다. 그는 신문 배달원이었다. 매일 새벽마다 들려왔던 소리는 정확히 말하면 빨리 신문을 배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가기 위해 작업을 최소화하려는 배달원의 숙련된 움직임이 내는 아주 짧고 굵은 소리였다. 또한, 나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경계하게 만들던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떠나지 못한 것이 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공간에 나 말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나를 안심시켜 주고 있었다. 이처럼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되고, 나의 사람들이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나는 나의 연구 질문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애당초 나는 ‘타자’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지만, ‘우리’와 ‘타자’를 나누는 그 구분선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의 질문은 그들이 나와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왜 나는 그들을 다르다고 느꼈던 것인가’, ‘왜 나는 그들이 같지 않다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오해했던 것일까?’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들’을 향해 던졌던 물음표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아마도 일본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만 되어가는 원자력 발전소 사태를 지켜보며 얼마 뒤 나 역시 한국으로 돌아갈 짐을 꾸려야만 했다. 한동안 나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본의 지인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무력한 나의 앞에 한 때 내가 지독하게 의심을 품었던 사내가 열심히 얼음을 깨뜨리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샅을 들었다. 얼음 깨기 전용 샅은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와 함께 나는 묵묵히 우리 앞에 놓인 얼음을 깨뜨렸다. 물론 우리는 안다. 시간이 지나면, 얼음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그 얼음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을. 그때 거기에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다시 봄을 맞이할 것이고, 여름과 가을을 살아갈 것이다. 겨울이 오면 다시 새로운 얼음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그 얼음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게다. 하지만, 그와 나는 얼음을 깨뜨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적어도 그 해 겨울, 우리가 어색함을 잠시 내려두고 얼음을 깨뜨리려 노력했음을, 그리하여 주차장이 우리들의 앞뜰이 된 것 같다는 잠시간의 일체감을 느꼈던 이 순간만은, 그 경험만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 감상

손 성 규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아마도 쉽게 기어츠의 답싸움 이야기가 생각날 것이다. 기어츠는 아름다운 말들로 자신이 그 관계망에 진입하게 된 순간을 서술한다. 물론,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꼭 기어츠가 말한 것과 비슷한 종류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해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낯선 것은 낯선 것이다. 단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날 뿐이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경험이 함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느낌이라는 감각을 형성할 때가 있다. 얼음을 깰 때와 비슷하게. 나는 종종 그런 순간들을 ‘택도 없다’고 말하곤 한다.

인간은 생존의 편의를 위해 범주적으로 인지처리를 한다. 불안과 평온은 일련의 범주처리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어느 순간 나는 불안해하는지. 무엇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지. 어떤 날에는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밀면 어찌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자주 가는 곳도 나에게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날에는 아주 평온하다. 때로는 사람들이 위험하거나 이상하다고 느끼는 국면에서 평온을 찾는다. 그곳은 왜 나에게 평온을 주는지. 그 마음은 어떻게 각인되는지. 그것은 아마도, 그 시공간에서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어떤 순간을 발견할 때이다. 그곳이 터널이든, 어떤 썬이든.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함께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단지, 이 대기에 내가 흘러 다녀도 된다는 일련의 감각이면 된다.

나는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저 사소한 평온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나는 각자의 얼음을 깨는 일련의 낯선 터널에 들어갈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함께 있음’의 감각이다.